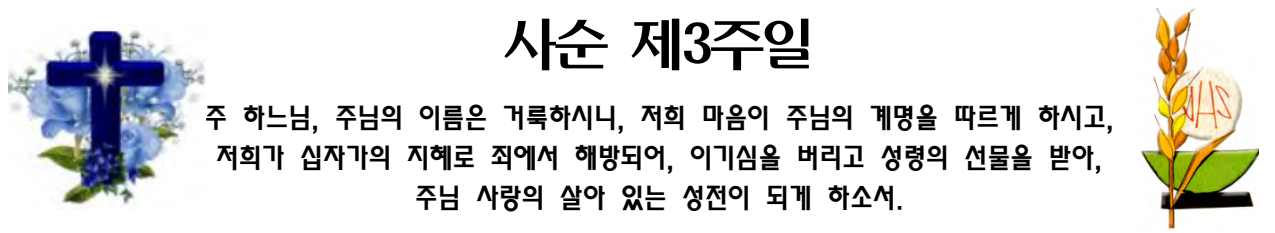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사순 제3주일

주 하느님,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니, 저희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시고,
저희가 십자가의 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님 사랑의 살아 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정한조 /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 박상준 안젤로 / 김화년 요안나 가정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인 성 요셉을 공경하며, 그분의 삶을 묵상합니다.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희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사순특강

- 일시 : 3/8(일) 중심미사
- 강사 : 샌루이스 성당 석근웅 요한 신부님(청주교구)
- 주제 : 신앙생활이란? (성사를 중심으로)

구역미사 및 판공

- 2/3구역 : 3/6(금) 오후 7시, 안병환 발렌티노 맥
2624 W. 145th St. Leawood
- 1구역 : 3/13(금) 오후 7시, 김태중 예레미아 맥
7729 Mohawk dr. Prairie Village

Unitas 청년 피정

- 일시 : 3/13일-15일(2박3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
- 문의 : 청년회장 선하서 미카엘라 (573) 673-1429

기타

- 교육부 : 지난 주 취소되었던 중/고등부 야외활동으로 오늘 스케이트장 갑니다.
- 평협 : 이번 주일 중심미사 후, 간단한 본당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 기타 : 맨하탄 공동체에서 3/20(금) ~ 21(토)까지 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28	215	182/163	11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 베드로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차주	안광민 야고보	차서은 세라피나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주	최은미 아네스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1	70명	296불	1,210불
양경직, 김도영, 문석찬, 이우영, 정연숙, 류기범(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이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살고자 우리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성전으로 세우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그분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의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 성전이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몸이 곧 성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기적으로 만들어낸 하느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 지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요한 1,17 <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 >



주 님 은 영 원 한 생 명 을 주 는 말 씀 을 가 지 고 계 시 나 이 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 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도다. ◎
-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니 눈을 밝혀 주도다. ◎
- 주님을 경외함은 순전하니 영원히 남고 주님의 판단은 참다우니 모두가 다 옳도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 바람직 하고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달도다. ◎

제 2 독서 : 코린토 1서 1,22-25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어떤 신앙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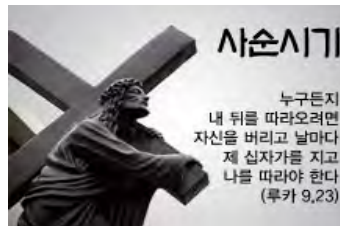
오늘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을 전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활 초기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활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로 소개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에, 카나에서 첫 번째 표징을 일으키신 후에 일어난 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에서부터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묘사하고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성전 정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복음서가 부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단지 예수님의 공생활 때에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믿음을 통해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당신 몸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바오로 사도가 이해한 것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표현을 통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요약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세상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느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누가 보아도 화려하고 놀랄만한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좇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마치 ‘강하지 않으면 손해 본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농담처럼 사용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독서인 탈출기에서 전하는 십계명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계명입니다. 지켜야 할 가르침이지만 그 내용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가르침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에 대한, 가족과 생명에 대한, 개인이 보호받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딱딱한 말로 표현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과 이웃입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없이 이웃만을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관계가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는 것 역시 부활을 잘 준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카톨릭대학 허규 신부 -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12 장 통회의 기도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요엘 2,12-13).

【주석】

단식하고 : 단식할 때에는 수수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머리에 재를 뿌렸으며 음식과 부부관계도 삼갔다(주석 성경, 2676). 참된 단식에 대해서는 이사 58,1-12를 참조.

울고 슬퍼하면서 : 통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슬퍼하는 마음, 곧 통회의 마음이 우리나라와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 회개는 의지적이고 전인적이어야 한다. 사실 “마음”은 숙고하고 문제를 온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중심을 가리킨다(주석 성경, 2678).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마태 15,8).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 여기에서 예언자는 참된 회심이 동반하지 않은 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다(주석 성경, 2678).

【설명】

▶ 통회(痛悔)란 무엇인가? 통회란 몹시 뉘우침을 말한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가장 요긴한 요소다. 용서를 청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마음이다. 하느님께서는 용서를 청하는 당신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받아들이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에제 33,11)

▶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2베드 3,8-9).

【교회의 가르침】

▶ 참회라는 말과 그 내용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참회를 공관 복음에 나오는 회개(metanoia)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그 말은 하느님 말씀에 감복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편에서 볼 때에, 참회는 마음을 고치는 일과 함께 외적인 생활까지도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화해와 참회, 4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